

독일 가구디자인에 관한 연구 I

-바로크 · 로코코양식의 의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German Furniture Design I

Focused on the Chairs of Baroque and Rococo styles-

조숙경 · 김종서

독일 가구디자인에 관한 연구 I

-바로크 · 로코코양식의 의자를 중심으로-

조숙경*1 · 김종서*2

A Study On German Furniture Design I

- Focused on the Chairs of Baroque and Rococo styles-

Sook-Kyung Cho · Jong-Seo Kim

목 차	
1. 서 론	3. 로코코양식
1-1 연구목적	3-1 북부
1-2 연구범위 및 방법	3-2 중부
2. 바로크양식	3-3 남부
2-1 북부	4. 결 론
2-2 중부	5. 참고문헌
2-3 남부	

ABSTRACT

German Baroque and Rococo styles in furniture design show three types because of political and geographical conditions - Northern style from Holland and England, Middle one from France, Southern one from Italy. The German's Baroque style, however, emphasized in practicality and metamorphosed form and material using the motive of plant trunk, flame pattern, and Acanthus leaf.

Furniture of German Rococo style was designed form and color becomingly with surrounding space, and chairs were displayed decorations of more pictorial and two-dimensional curved lines than structural forms, using the pattern of palm tree leaf, clam, flower, ribbon, and lattice.

keyword: German, Baroque, Rococo, Chair

*1 서일대학 생활가구디자인과 전임강사, Department of Living Furniture Design, Seoil College, Seoul, Korea, 131-702

*2 경민대학 가구실내디자인과 겸임교수, Department of Furniture Interior Design, Kyung Min College, Uijung Boo-City, Korea, 480-702

1. 서론

1-1. 연구목적

해마다 국제적인 가구박람회와 곳곳에서 열리고 있으며, 그때마다 우리나라의 디자이너를 비롯하여 가구관련 종사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자 날아간다.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규모의 가구박람회는 독일의 쾰른(köln) 박람회와 이탈리아의 밀라노박람회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쾰른박람회는 대규모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산업체위주의 박람회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반하여 밀라노 박람회는 디자이너나 소그룹이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실험적인 무대로 각광 받고 있다. 국가정책상 사향산업으로 전략하고 있는 우리 가구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디자인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의 길을 열어야 함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하드웨어를 비롯하여 신기술개발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기능중심적인 독일 가구디자인의 역사를 살펴봄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가구시장을 이끌어 가는 엔틱(Antique)양식의 경향에 발맞추어 독일의 바로크(Barock)·로코코(Rokoko)시대의 의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가구 역사의 기초라 볼 수 있는 바로크·로코코양식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정리해 봄으로써 엔틱양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가구디자인의 기초지식을 다지는데 그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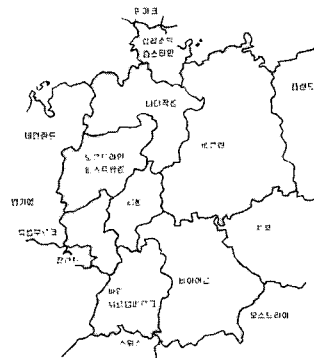
1-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는 독일의 바로크양식이 시작되는 1640년경부터 로코코양식이 끝나는 1760년까지의 의자를 중심으로 하며, 이에 관련된 전문서적과 정기간행물 그리고 인터넷사이트들을 토대로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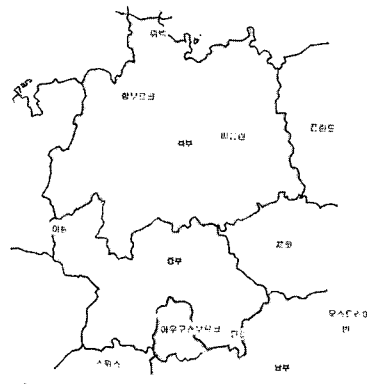
2. 바로크(Barock)양식

“비뿔어진 모양의 기묘한 진주”라는 뜻을 가진 바로크양식은 1640년경부터 1730년경까지의 양식으로 르네상스 말기에 이탈리아의 로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역동적이면서도 장중한 미를 추구하였고, 화려한 세련미가 그 특징이다.

독일의 바로크 양식은 정치적·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았으며, 시민들이 사용했던 가구들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1>은 현재 독일의 지도이며 <그림2>는 바로크, 로코코시대의 상황을 나타내는 지도로서 1871년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 독일의 남부는 바이어른주의 아우구스부르크와 현재 오스트리아를 가리키고 있다.



<그림1> 현재독일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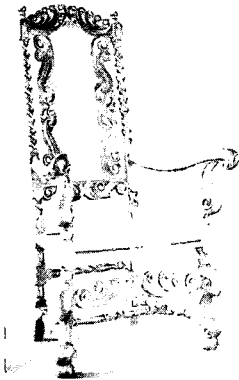


<그림 2> 1871년 독일 통일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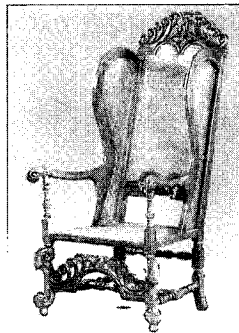
독일의 북부는 네덜란드의 영향이 엿보이며, 중부인 라인란트(Rheinland)는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남쪽은 이탈리아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2-1 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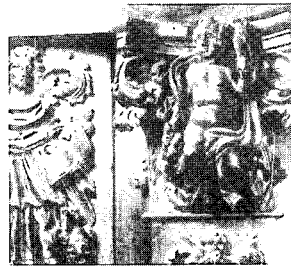
1700년경 네덜란드의 영향은 독일의 북부와 중부의 일부에서 나타난다. 네덜란드의 바로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문짝을 회화적으로 그린 것과 다른 하나는 이탈리아의 영향으로 조각이 가미된 것이다. <그림3>은 등나무로 만들어진 샤로텐부르크(Charlottenburg)성의 팔걸이의자로 네덜란드의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앞의 두 다리를 잇는 가로대와 등받이 그리고 팔걸이 앞부분에 보이는 소용돌이무늬는 1685년경에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그림4>의 의자와 흡사하다. <그림5>는 1700년경 함부르크(Hamburg)에서 만들어진 거실장의 부분사진으로 조각상을 둘러싼 화려한 아칸더스잎의 장식을 엿볼 수 있다.



<그림3> 팔걸이 의자, 샤로텐부르크



<그림4> 네덜란드, 1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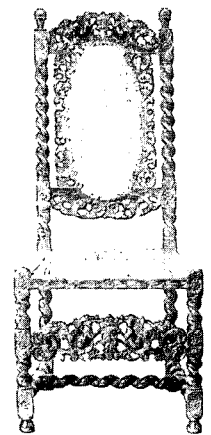


<그림 5> 거실장의 부분, 함부르크, 독일, 1700년경

2-2 중부

독일의 중부는 프랑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가장 독창적인 바로크스타일을 발전시킨 프랑스는 화려하고 대칭과 균형을 중시하였으며, 루이 14세 양식이라고도 불려지는 프랑스의 바로크양식의 대표작은 베르사이유 궁전이다. 유연한 곡선과 장식적이며 장중하면서도 화려한 실내장식과 가구 그리고 조각품들은 왕실을 중심으로 성행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궁중만큼은 아니지만 서민들의 가구에서도 바로크적인 경향이라고 말할 정도로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바로크 양식은 프랑스와 독일 왕실간의 혼인으로 인하여 독일로 유입되게 된다. 선제후 막스 엠마누엘(1679-1726)시대에 그의 누나가 다우핀²⁾(Dauphin)과의 결혼으로 인해 프랑스식 궁중예술이 뮌헨에 들어와 널리 유포되었는데 에석하게도 남아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림6> 1700년경,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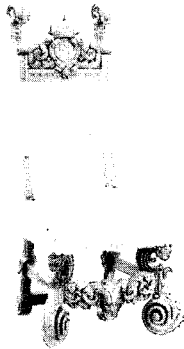
2-3 남부

독일남부는 이탈리아의 영향아래 있었는데, 뮌헨(München)관저에 있는 1700년 중반의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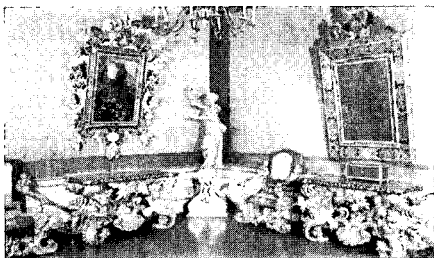
2) 다우핀주의 영주로 12c 남프랑스에서 돌고래를 문장으로 쓴 프랑스 황태자의 칭호

락의자<그림7>은 조각이 많이 가미된 이탈리아 바로크양식<그림8>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난다. 즉 과장되고 인공적인 달팽이 장식은 아칸더스(Akanthus)³⁾ 잎 모양으로 뒤덮힌 이탈리아 조각 가구를 연상케 한다. 또한 기울어진 등받이와 좁은 판자다리의 연골장식은 그 고유한 관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은 독일 남부의 가구들은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실용적인 가구로 변형되었는데, 즉 <그림9>와 같이 팔걸이가 없어지고 좌판이 넓어진다. 이것은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4개의 다리를 가진 작은 판자 결상이다. 다리에 보여 지는 이러한 선반가공 장식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계승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과장된 달팽이 장식은 오직 등받이에만 국한시켰고 좌판과 다리에는 절제하였는데 이러한 가구의 양식은 이미 1600년경의 남부독일에서 사용되었다. 이러한 예는 1700년경 남부독일의 실내공간에서도 나타나는데, 즉 그 열정적인 아칸더스장식은 장인들의 새로운 발명이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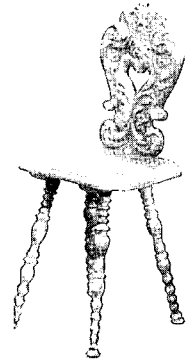
<그림 7> 안락의자, 뮌헨, 1700년 중반



▲<그림8> 이탈리아, 안드레아 브루스톨론(Andrea Brustolon)양식, 1700년경: 화려한 아칸더스잎모양의 다리를 이용해 만든 콘솔과 의자들

3) 쥐꼬리 망초과로 그리스인들이 코린트식 기둥머리 장식으로 양식화하여 많이 사용했음.

<그림 9> 남부독일, 1700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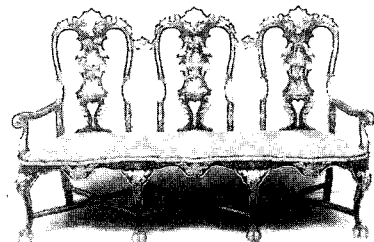
3. 로코코(Rokoko)양식

로코코양식은 프랑스에서 유래했고, 대략 1730년경부터 1760년경까지의 양식을 말한다. 이지적이고 남성적인 바로크양식에 비해 로코코는 여성적이며, 감각적이라 할 수 있으며, 주로 실내장식과 가구류에 현저하게 나타난다.

1800년경 유럽나라들의 가구형태들은 비교적 유사함을 보이고 있는데 독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프랑스왕실과의 친척관계는 독일 남부의 바이어른(Bayern)과 팔츠(Pfalz)지역을 문화적으로 프랑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하는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다.

3-1 북부

북부 독일은 영국과 네덜란드의 가구양식 <그림10>의 강한 영향아래 있었다. 특히 영국의 영향은 직접 수입되거나 가구제작자들의 이동 그리고 카탈로그의 유포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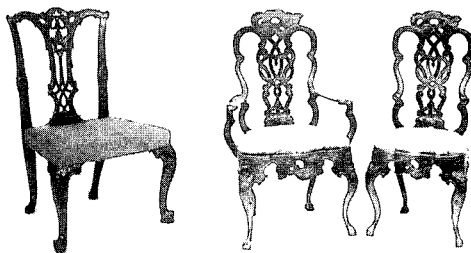


<그림10> 네덜란드, 1800년경

영국의 로코코는 앤여왕 및 조지안 그리고 치펜데일(Chippendale)과 같이 왕이나 가구제작자의 이름을 딴 경향들로 구분된다. 넓은 패널로 만들어진 벽과 단순한 몰딩 등 실내에 건축적인 요소가 부여되며 가구들은 간결하고 우아하며, 세련된 비례미를 보여주고 있다.

치펜데일⁴⁾, 헤플와이트(Hepplewhite)⁵⁾, 셰라튼(Sheraton)⁶⁾과 같이 가구제작자들의 이름이 붙여진 영국의 가구들은 독일의 목수들에 의해서 모방되어졌다. 또한 등나무로 엮어 만든 의자가 영국적이며, 네덜란드적인 모델로 널리 유포되었다. 이것들은 실용성 중심으로 그 형태나 구조가 변형되었으며, 비싼 마호가니 원목들은 마호가니 판자나 서양너도밤나무로 대체되었다.

시민적인 가구예술의 중심은 이미 바로크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항상 한자동맹도시인 북쪽이다. 원목과 조각이 주류를 이루는 치펜데일<그림11>의 영향은 1760년경에 뤼벡(Lübeck)에서 만들어진 의자<그림12>에서 증명된다. 부서지고 조각난 장식과 튀어 나온 끈들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팔걸이에 도톰하게 천과 쿠션으로 장식되었던 것에서 탈피하여 팔을 편하게 올려놓을 수 있도록 목재를 넓적하게 제작하였다. 또한 <그림13>에서처럼 놀랍게도 당시의 불룩한 복장으로든 가볍고 우아하게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카드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의자들을 볼 수 있다.



▲<그림 11> 치펜데일, 영국, 1755년:
중국의 정자지붕이나 문창살을 응용한 디자인

▶<그림12> 뤼벡, 1760년



<그림13> 라이프지히(Leipzig), 독일, 1744년

독일 로코코의 가장 으뜸인 장식은 베를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746년 프리드리히(Friedrich)⁷⁾대왕을 위한 크리스티안 오펜하우프트의 포츠담시의 성에 있는 “볼테르(Voltaire⁸⁾)-방”<그림14>이 만들어졌다. 나무 조각들로 그려진 벽의 장식들로 꾸며진 이 방은 매혹적인 기품과 절제된 우아함을 보여준다. 프랑스 예술과 문화를 향한 프리드리히의 애착은 의미 있는 가치를 위한 확실한 느낌에 기인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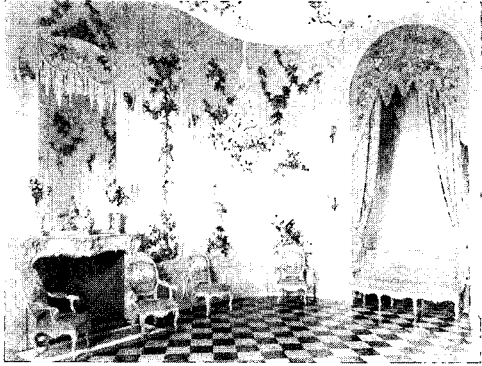
4) 1718-1792, 영국출생, 가구디자이너로 런던에서 가구점을 운영함. 마호가니를 주로 사용했고 가구다리에 발톱모양을 자주 응용함. 중국식 격자무늬, 석탑의 지붕, 조개, 아칸더스잎을 주로 응용함. 우아함과 실용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킴. 기술자의 이름을 딴 가구양식은 최초임.

5) 종려나무잎, 리본, 향아리 그리고 밀이삭 등을 주로 응용하였으며, 의자의 등받이가 방패형이나 하트형이 주류를 이룸.

6) (1751출생-1806사망)1790년부터 1805년에 유행한 양식으로 베니어를 쓴 가구임. 장방형과 정방형의 등받이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장미, 부채, 아칸더스 그리고 조개껍질장식을 사용함.

7) 프리드리히2세(1712-1786): 프로이센의 국왕(재위: 1740-1786), 프랑스의 볼테르와 서신왕래

8) 1778년 사망, 프랑스의 작가, 철학자, 계몽사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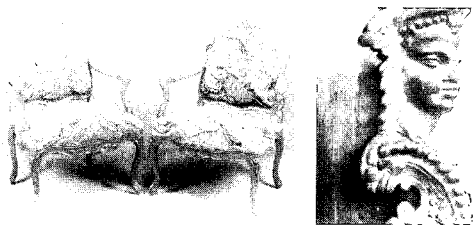
<그림 14> 볼테르의 방, 포츠담(Potsdam), 독일, 1746년

3-2 중부

마인강 남쪽과 포츠담, 드레스덴 그리고 뵘헨의 궁궐들은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프랑스의 로코코는 루이 15세 시대의 양식으로 부드러운 여성미를 강조하여 섬세하고 우아하며 꽃과 소용돌이무늬를 주로 사용하였다.

실내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발전한 양식으로 인체치수에 맞는 규모와 비례의 가구들을 볼 수 있다. 또한 금도금한 금속장식과 가구의 접합부분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그림1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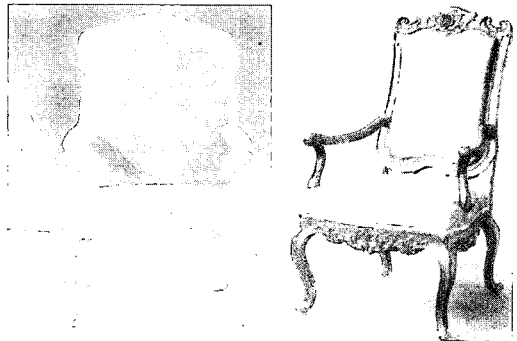


<그림15> 18c, 프랑스, 너도밤나무

<그림16> 코모드의 청동장식, 파리, 1735-40

독일태생의 요세프 에프너(Josef Effner, 1687-1745)는 정원사 아들로 건축을 배우기 위해 프랑스로 건너가며, 1715년 막스 엠마누엘(Max Emanuel)제후의 궁전건축사로 임명된다. 그는 루이15세의 양식을 보여주는 호화스런 가구들을 설계하였으며, 프랑스 로코코

를 뵘헨에 옮겨 놓기 시작했다. 그의 우아하고 경쾌하며 환상적인 가구들은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예술세계에서도 대단한 호응을 얻었다. 18c의 매혹적이며 서민적인 가구들은 아헨(Aachen)과 뤼티히(Lüttich)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아헨은 자유로운 독일직속의 도시이며, 뤼티히는 1815년까지 독일 제국의 일부였다. 이 두 도시는 예술적인 경계지역으로 17c에는 독일의, 18c에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지배 하에 있었다. <그림18>은 뤼티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림17>의 의자 다리 맨 끝부분에 보여 지는 정밀한 달팽이 장식을 모방하고 있다. 또한 앞다리 두개를 연결하는 전각부분의 조각문양은 다르지만 외곽형태가 유사하며 팔걸이의 앞부분도 흡사하다. 등받이는 <그림15>의 것을 길쭉하게 늘여놓은 듯 하며 결코 과장되지 않고 의미심장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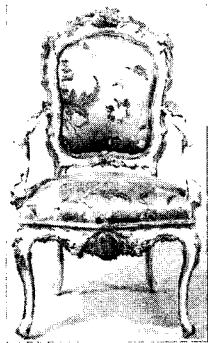
△<그림 17> 팔걸이의자, 너도밤나무, 프랑스, 1720년경

▷<그림 18> 팔걸이의자, 덕갈나무, 뤼티히, 18c 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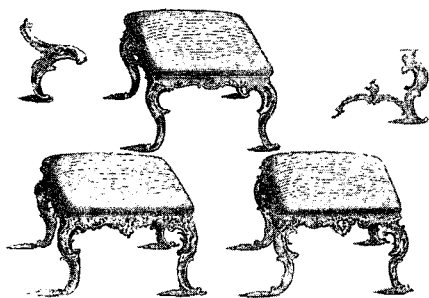
3-3 남부

독일 남부는 이탈리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탈리아 로코코양식<그림19>의 가구는 그 규모가 빈약하며, 도금과 페인트 칠 그리고 옷칠된 가구가 성행하였다. 소용돌이와 같은 곡선과 꽃줄기 그리고 나뭇가지 등의 장식을 사용하였다.

<그림 19> 18c, 베니스, 이탈리아



남부독일 동판조각공예의 중심인 아우그스부르크(Augsburg)도 로코코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곳의 로코코는 아주 특이했는데 프란츠 사버 하버만(Franz Xaver Habermann)의 스kets<그림20>에서 그 면모를 엿 볼 수 있다. 스톨의 다리부분을 세밀하고 자극적이며 놀이에 열중한 듯한 이 스kets 이외에도 테이블, 옷장들의 밑그림을 그렸고, 이는 로코코양식이 공예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



<그림 20> 스톨스kets, 프란츠 사버 하버만, 아우그스부르크(Augsburg), 독일, 18c 중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귀족계급은 궁정이나 영주의 성을 중심으로 생활하였으며, 오스트리아의 빈(Wien)은 파리뿐 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풍부한 영향을 받았다. 1744년 마리아 테레사여왕의 지배아래 쉰브룬(Schönbrunn) 궁전의 화려한 공간들이 꾸며졌다. 장미나무로 널빤지를 대어 만들고 인도식 양피지세밀화로 100만개의 방이 장식된 것이다. 이시기

의 시민가구들은 과장된 달팽이의 장식은 사라지는 등 스kets에서부터 단정함을 보여주고 있다.

4. 결 론

다른 유럽 국가들이 그렇듯이 독일의 바로크·로코코양식도 귀족들이 중심이 되어 서민계급에게까지 널리 파급되었으며, 정치적·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영국과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1. 바로크양식

육중한 형태, 대칭 그리고 값비싼 재료가 그 특징이며, 식물줄기, 불꽃무늬, 아칸더스잎 등을 모티프로 주로 사용하였다.

독일의 바로크양식은 북으로는 영국과 네덜란드, 중부는 프랑스 그리고 남부는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듯 여러 나라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도 독일은 실용성에 중심을 두고 나름대로의 바로크양식을 성립해 나갔는데, 과장된 소용돌이나 아칸더스잎 등의 장식들이 단순화되어 재료의 절감과 제작과정의 간소화를 가져왔고 좌판과 등받이가 넓어져 사용하기에 더욱 편리하였다. 재료면에서는 다른 유럽의 나라들이 장미목, 호두나무, 가죽, 거북등껍질 그리고 금칠 등의 값비싼 재료를 사용했던 반면에 독일의 가구들은 참나무나 너도밤나무 그리고 천과 같은 싸고 튼튼한 재료로 대체되었다.

2. 로코코양식

로코코시대에는 작고 아담한 가구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곡선적이고 비대칭이 그 특징이다. 주로 아칸더스잎, 나뭇가지, 꽃, 새, 바위, 이끼, 조개, 물 등 자연적인 소재를 이용하였다.

독일 로코코양식의 가구들의 형태와 색상은 주위의 공간과 조화 있게 설계되었고, 의자틀

은 건축적인 구조보다는 회화적이며, 평면적인 곡선의 장식들을 나타내고 있다. 주로 종려나무잎이나 조개, 꽃, 리본 그리고 격자로 끈무늬를 많이 사용하였다. 즉 과장된 달팽이 장식이 정리되고 단순화 되면서 화려하거나 우아한 프랑스의 로코코와는 다르게 좌판과 등받이가 넓어지고 팔걸이부분의 장식이 약화되거나 <그림12>와 같이 기능적인 형태로 변화되었다.

위와 같이 주변의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바로크·로코코양식은 실용주의가 가미되어 그들만의 특징적인 의자들을 만들어 갔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 후 유겐트스틸과 바우하우스를 거쳐서 현재 독일의 가구를 포함한 디자인의 특징인 실용주의를 구축하는데 그 기초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5. 참고문헌

1. 오영근, 세계가구의 역사, 기문당, 1999
2. 월간피플, 2002년 8월 창간호
3. 월간 리빙플러스, 2003년 8, 9월호
4. 이연숙, 서양의 실내공간과 가구의 역사, 경춘사, 1989
5. H.W. 쟈슨 저, 서양미술사, 미진사, 1987
6. Lydia L. Dewiel, stühle & sessel, HEYNE, 독일 뮌헨, 1999
7. Edith Holm, stühle von der Antike bis zur Moderne, 독일 뮌헨, 1978
8. Museum für Angewandte Kunst Köln, Möbel, 독일 쾰른, 1989
9. vitra.de
10. yahoo.com/ 인물사전